

# ‘기호난하’의 시대,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며



김 중 섭  
교수 · 국어국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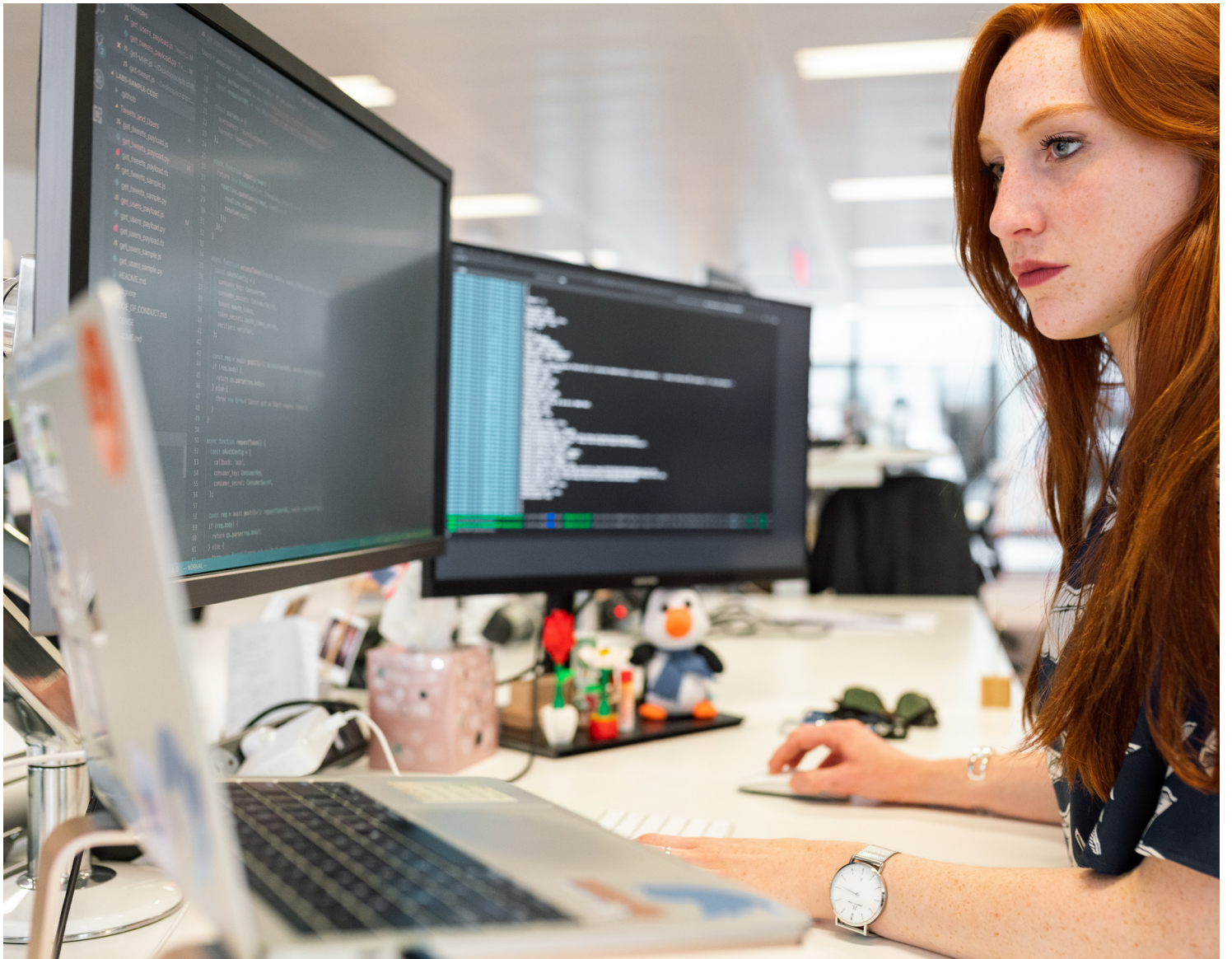
## 우리대학의 글로벌한국어 한국학 교육 중심

11월, 검은 호랑이띠 임인년(壬寅年)도 한 달 남짓 남았다. 매년 연말이면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우리 사회의 지성들이 던지는 화두가 무엇일지 자못 궁금하다. ‘달리는 호랑이 등에 앉아서 내리지 못한다’는 뜻의 ‘기호난하(騎虎難下)’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편승하게 된 전환기는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지정학적 위기 고조, 고물가와 고금리, 급등락하는 거시경제지표, 기후 위기와 그에 따른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의 대전환, 탈세계화로 재편되는 글로벌 가치사슬, 신 냉전 시대의 도래 가능성 등 젊은 세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로 일상이 요동치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물과 경계는 뒤섞여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든다. 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말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통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우리는 ‘원격’으로 많은 것들을 했다. 어린 학생부터 사회인까지 국민 대다수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일을 온라인으로 해냈다. 인터넷이 본격화된 지 불과 30여 년 만에 데이터의 생성과 압축, 전송, 연결, 응용 등에서 얼마나 괄목할 만한 기술 발전이 있었던 것일까? 기술의 발전이 ‘제2의 산업혁명’이란 이름으로 세상을 뒤바꿀 시기가 다가왔음을 실감한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은 회사명을 메타(META)로 바꾸고 메타버스 사업에 지난 1년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3,900억 원을 투자했다. 세계적 명문 스탠퍼드 대학에서 시작된 온라인 교육플랫폼 기업 코세라(COURSERA)는 그 외형은 급속하게 확대돼 올해 1분기에만 500만 명의 신규 학습자가 늘어 총 8,2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거대 교육플랫폼이 됐다. 다수의 국내 교육 기업 또한 에듀테크 및 교육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ICT 기술을 접목하여 한국어와 한국학 관련 지식의 생산과 유통, 소비와 교류의 중심이 되는 허브를 우리 대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진=언스플래쉬)

“

기술이 발전할수록 지식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도  
변화한다. 문명사적 전환기에  
대학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은 무엇인지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이다.

”

피하며 미래가치 선점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은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첫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대학의 재정 위기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국내 대학의 상황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디지털 원주민 세대가 탄생하고 초연결로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지식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도 변화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그 시험대 역할을 한 셈이다.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에 대학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은 무엇인지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일반대학의 온라인 과정 승인 기준’이라는 지침을 통해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밝힌 취지는 “원격수업 등을 통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의 혁신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국내·외 대학 간 공유 협력

활성화를 위해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허용 필요”이다. 관계 법령도 개정됐고 마땅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쉽게도 우리 대학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전환기의 맥락을 읽고 전략 기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기에 만전을 기하는 듯하다.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분야의 뛰어난 학문 자산과 역량을 기존 학제(學制)와 중복됨 없이 학제(學際) 융합을 통해 온라인 과정으로 열개를 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구성원 다수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다. 미래 가치를 위해 선제적 자원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현실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말 한류 관련 동호인 수는 116개국 1억 5,660만 명에 이른다. 현재 39개국 1,669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해 16만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107개국 1,408개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대륙별로 거점 대학에 한국학센터가 설립됐고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회를 중심으로 학문교류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류의 확산과 정부의 한국어 지원 정책, 기업의 해외 투자 등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학 교육 수요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배경으로 ICT 기술을 접목하여 한국어와 한국학 관련 지식의 생산과 유통, 소비와 교류의 중심이 되는 허브를 우리 대학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어교육 분야만큼은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년 2023년은 국제교육원에 한국어교육과정이 개설된 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우리 대학은 한국어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전공,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한국어학,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등을 발전시켜왔다. 구성원과 함께 그간의 성과를 축하하며 새로운 30년, ‘글로벌 한국어·한국학 교육의 중심’을 목표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